***Nyíri Attila**:*

Egy nem létező csatára emlékezve…

(A katalauni ütközet)

Történelmünk egyik, még válaszra váró pontja: a hun és a római sereg katalauni csatája.

A történelem tanítása szerint időszámításunk 451. évében Galliában, a Marne folyó mellett (mai neve Châlones sur Marne), Katalaunnál vívott döntő csatát Atilla (a hunok fejedelme) és Aéciusz (római hadvezér) serege. A leírás szerint a csata döntetlen eredményt hozott, ezért mindkét fél visszavonult.

A fentiekben elmondottakat (leírtakat) a száz évvel később élt Jordanesz püspök „emlékezetből pontosan!?" leírja anélkül, hogy ezt az állítását tárgyi, írásbeli bizonyítékkal vagy megnevezett személlyel alátámasztotta volna.
A továbbiakban történészeink megdönthetetlen tényként adták ezt tovább, és a mai napig is így tanítják.

A gondolkodó és tényeket igazolni akaró elme oknyomozói ésszerűséggel vizsgálni kezdi, mi is történt ott, Katalaunnál?

<u>Tételezzük fel, hogy a csata megtörtént</u>.

- *Ez esetben 165 ezer ember és 80 ezer ló teteme a csatamezőn maradt.*
- *Amennyiben a végtisztesség megadása végett az emberi testeket elszállították, úgy még mindig ott maradt 80 ezer ló teteme.*

Tény: történelmi kutatások során a régészek a teljes mezőt feltúrták, azonban semmi csatára utaló nyomot, sem csontokat nem találtak.

Folytassuk tovább a gondolatsort.

Abban az időben az 1 km^2 -re eső népesség nem volt magas, ezért 80 ezer harcos elvesztése mindkét fél számára jelentős veszteséget jelenthetett. Megválaszolandó kérdés marad az is, hogy Atilla – ilyen megrendítő vereség után – még ugyanaz év (451) telén és 452 tavaszán hogyan indíthatta el észak-itáliai hadjáratát?

Tény: az észak-itáliai hadjárat során elfoglalta a bevehetetlennek hitt Akvileját, majd Milánót, Páviát, Veronát, Mantuát, Bresciát, Beramot, sőt Kremonát is.

Felmerülő kérdések:

1. *Honnan pótolta Atilla fejedelem az előző évi veszteséget?*
   (80 ezer harcos fegyverzettel, ellátmánnyal, lovakkal stb.)
2. *Mi lett Aéciusz római hadvezérrel, aki Katalaunnál megállította?*

Atilla fejedelem serege, tovább folytatva hadjáratát, eljutott Rómáig, ahol – Leó pápa könyörületre való kérésére – hadát megfordítva hazaindult.

Priszkosz rétor szerint a fejedelem a pápai küldöttséggel annak nyelvén beszélt.

A Nyugat számára Atilla fejedelem cselekedete teljességgel érthetetlen volt, miután a gótok korábban nem kímélték Rómát.

A nyugatiak félték és rettegték a hun hadat és annak vezérét, Atillát. Ezt bizonyítja az a fametszet is, amely a fejedelmet kutyafejjel, a lehető legijesztőbbnek ábrázolja.

Gyűlölték, és ezt a gyűlöletes ellenszenvet átvitték a magyar népre is.
(sok példa adódna, de elég csak az Árpád-házi királyaink korai elhalálozását vagy Trianont megemlíteni)

*Valaki valahol azt mondta vagy írta: „**igazi történelmet csak a néptől tanulhatunk**” — és igazat szólt.*

Ezért a Jordanesz által leírtakat a néprege műfajához kell sorolni.

Kispest, 2007. jégbontó havában

ⵉⵜ ⵜⵜⵓⵔⵉⵏ ⵖⵔⵉⵏⵏⴰⵖ ⵉⵏⵉⵏⵏⴰ ⵙⵙⵏ ⴰⵣ...

(ⵏⵉⵏⵉⴰⵏⵏ ⵜⵓⵎⴰⵣⵏⴰⵏ ⴰ)

ⵎⵣⵃⵣⴰ ⵜⴰⵖⵙⵄⴰ ⴰ ⵎⵏ ⵓⵎⴼ ⴰ :ⴰⵏⵏⵓⵓⵉⵄ ⵄⵃⴰⵎ ⴰⵃⵏⴰⵣⴰⵎ ⵎⵏⵣⵖ ⵏⵓⵄⵜⵉⵏ ⵏⵓⵏⵏⵣⵣⵓⵓⵏⵏⵓⵃⵉⵏ
ⵏⴰⵏⵏⵣⴰⵃ ⵜⴰⵎⴰⵣⴰⵏⵏⴰⵏ.

ⴰ ⴰⵏⵓⴼⵏⵣⴰⵣⴰⵏ ⵓⵣⵏⵣⵎⵏ. ⵏⵏⵏⵏⵏ ⵏⵓⵎⵎⴰⵏⵏⵏⵏⵓⵏⵏⵓⵏⵏⵓ

Nۥۦۥۦۥۦ ۱۱۳۸۸۱۱. ۱۰۷۸۷۷۷۰۷۰۷ ۳۸۸۸

서문

연구 목적은 여러 가지다. 첫째, 기존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 수치가 어떤 조사 설계에 기대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다. 둘째, 그 설계가 오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짚는 것이다. 셋째, 대안 지표를 세 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적는 것이다.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새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. 다만 세 가지를 한 자리에 모아 놓은 글은 드물다고 생각했다.

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. 2장에서는 자주 인용되는 세 조사를 차례로 살핀다. 3장에서는 그 조사들이 공통으로 가정하는 것들을 모아 본다. 4장에서는 그 가정이 흔들리는 지점을 보인다. 5장에서는 대안 지표 세 개를 제시하고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 적는다. 6장은 결론이다. 부록에는 표본 설계 메모와 질문지 초안을 실었다. 본문만 읽어도 흐름은 따라갈 수 있도록 각주는 최소한으로 줄였다.

1. 왜 이 주제인가

지난해 봄, 한 지방 도시 보건소에서 주민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있었다. 담당자는 응답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.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로 조사 방법을 탓했다. 전화 조사냐 방문 조사냐, 표본 크기가 충분한가, 가중치를 어떻게 매겼는가 같은 얘기가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. 정작 그 조사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, 그 질문이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지는 거의 얘기되지 않았다.

이 글은 그 자리에서 빠졌던 얘기를 적는 글이다. 조사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. 다만 방법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질문이 밀려난다는 것, 그리고 그 순서가 뒤집혀야 한다는 것을 적는 글이다. 독자가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자기 동네 조사 계획을 한 줄이라도 다시 쓰게 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.

2. 자주 인용되는 세 조사

세 조사를 차례로 살핀다. 첫 번째는 도시 가구 패널 조사다.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다. 세 번째는 노인 돌봄 수요 조사다. 셋 다 공공기관이 의뢰하고 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조사다. 셋 다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고, 셋 다 정책 토론에서 자주 인용된다. 셋 다 표본 설계가 꼼꼼하다고 평가받는다. 그래서 이 글에서 고른 것이다.

도시 가구 패널 조사는 한 가구를 세 해 동안 다시 만나는 조사다. 응답자는 매년 같은 질문에 답한다. 이사 한 가구, 새로 태어난 가구, 떠난 가구는 표본 안에 남아 있다. 이 설계는 변화를 잡는 데 강하다. 다만 패널 유지 비용이 매년 올라간다. 응답자가 지치면 탈락률이 올라가고, 탈락률이 올라가면 표본 대표성이 흔들린다. 이 조사는 그 흔들림을 스스로 보여 준다.

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는 학교 명부를 빌려 표본을 뽑는다. 학교 밖 청소년 전체 명부는 없기 때문에 학교 명부가 출발점이 된다. 그 명부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, 그 질문이 보고서 안에 분명하게 적혀 있다. 노인 돌봄 수요 조사는 가구 단위 면접을 한다. 돌봄 수요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있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있다. 이 조사는 그 둘을 같은 칸에 넣지 않는다.

3. 공통으로 가정하는 것들

세 조사 모두 응답자는 자기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말한다고 가정한다. 둘째, 가구 구성은 한 해 안에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. 셋째, 결측은 무작위에 가깝다고 가정한다. 넷째, 가중치 산식은 모집단 인구 구조를 충분히 따라간다고 가정한다. 이 가정들은 대체로 무난하다. 문제는 그 무난함이 어디에서 깨지는지 아무도 잘 모른다는 데 있다.

첫째 가정부터 보자. 응답자는 자기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말한다고 가정한다.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무난한 답을 고르는 쪽을 더 자주 한다. 소득, 음주, 돌봄 시간, 이웃 관계 같은 항목에서 그 차이가 크다. 조사 안에 그 차이를 잡는 장치가 거의 없다. 있다면 그 장치 자체가 또 다른 질문이 된다. 그 질문이 얼마나 무난한지 다시 묻게 된다.

둘째 가정은 가구 구성이 한 해 안에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. 그런데 한 해 안에 결혼, 이혼, 출산, 사망, 이사, 취업, 퇴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가구가 생각보다 많다. 패널 조사는 그 가구를 끝까지 따라간다. 따라가다 보면 표본 안에 남아 있는 가구와 떠난 가구 사이에 또 다른 차이가 생긴다. 그 차이를 모른 채 결과를 읽으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.

셋째 가정은 결측이 무작위에 가깝다고 가정한다. 결측은 거의 언제나 무작위에 가깝지 않다. 응답하기 싫은 질문일수록 결측이 많고, 그 결측은 응답자 특성과 함께 움직인다. 결측을 평균으로 채우거나 빼 버리면 그 차이가 사라진다.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. 그 처리 방법 자체를 보고서에 적어 두는 일이 생각보다 드물다. 적어 두면 독자가 그 결과를 다시 의심할 수 있다.

넷째 가정은 가중치 산식이 모집단 인구 구조를 충분히 따라간다고 가정한다. 가중치는 표본이 모집단과 다를 때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각 응답자에게 붙이는 숫자다. 산식 자체는 깔끔하다. 문제는 산식에 넣는 기준이 무엇인지다. 성, 연령, 거주 지역 정도를 넣는 일은 흔하다. 그 기준 자체가 오래되었거나 빠진 게 있으면 가중치는 그 빠진 것을 대신하지 못한다. 오히려 그 빠진 것을 가리게 된다.

4. 흔들리는 지점

흔들리는 지점 하나. 응답자 특성이 응답 자체를 바꾼다. 같은 사람이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한다. 그 차이가 무작위에 가깝지 않다. 그 차이를 잡는 장치가 조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. 있다면 그 장치 자체가 또 다른 질문이 된다. 그 질문이 얼마나 무난한지 다시 묻게 된다.

흔들리는 지점 둘. 패널 유지 비용. 패널 조사는 한 가구를 끝까지 따라간다. 따라가다 보면 비용이 매년 올라간다. 응답자가 지치면 탈락률이 올라간다. 탈락률이 올라가면 표본 대표성이 흔들린다. 이 조사는 그 흔들림을 스스로 보여 준다. 보여 준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어 두는 일이 또 다른 일이다.

흔들리는 지점 셋. 결측 처리. 결측을 평균으로 채우거나 빼 버리면 그 차이가 사라진다.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. 그 처리 방법 자체를 보고서에 적어 두는 일이 생각보다 드물다. 적어 두면 독자가 그 결과를 다시 의심할 수 있다. 의심할 수 있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의심할 수 있도록 적어 두는 일이 이 글 전체의 목표다.

흔들리는 지점 넷. 가중치 산식. 산식 자체는 깔끔하다. 깔끔하다는 말이 위험하다. 깔끔한 산식에 넣는 기준이 오래되었거나 빠진 게 있으면 가중치는 그 빠진 것을 대신하지 못한다. 오히려 그 빠진 것을 가리게 된다. 가리게 된다는 말은 더 위험하다. 가린 것을 다시 드러내는 일이 이 글 4장 전체다.

5. 대안 지표 세 개

대안 지표 세 개를 제시한다. 첫째, 패널 유지 비용 대비 정보 밀도. 둘째, 결측 처리 방법 공개 여부. 셋째, 가중치 산식 점검 주기. 셋 다 새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. 다만 셋 다 흔들리는 지점 셋 넷에 직접 닿는다. 닿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닿는 것이 이 글 전체의 목표다.

패널 유지 비용 대비 정보 밀도. 패널 조사는 한 가구를 끝까지 따라간다. 따라가다 보면 비용이 매년 올라간다. 비용이 올라가면 한 가구에서 얻는 정보 한 줄 한 줄의 값이 떨어진다. 떨어진 값을 다시 매기는 일이 이 지표다. 매기는 일은 어렵다. 어렵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어려운 일을 미루지 않는 일이 이 지표다.

결측 처리 방법 공개 여부. 결측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고서에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일이다. 적어 두면 독자가 그 결과를 다시 의심할 수 있다. 의심할 수 있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의심할 수 있도록 적어 두는 일이 이 지표다. 적어 두는 일은 어렵다. 어렵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어려운 일을 미루지 않는 일이 이 지표다.

가중치 산식 점검 주기. 산식 자체는 깔끔하다. 깔끔하다는 말이 위험하다. 깔끔한 산식에 넣는 기준이 오래되었거나 빠진 게 있으면 가중치는 그 빠진 것을 대신하지 못한다. 오히려 그 빠진 것을 가리게 된다. 가리게 된다는 말은 더 위험하다. 가린 것을 다시 드러내는 일이 이 글 4장 전체다.

6. 결론

결론은 짧다. 세 조사를 차례로 살폈다. 세 가지 가정을 모아 보았다. 흔들리는 지점 셋 넷을 짚었다. 대안 지표 세 개를 제시했다. 셋 다 새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. 다만 셋 다 흔들리는 지점 셋 넷에 직접 닿는다. 닿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닿는 것이 이 글 전체의 목표다.

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자기 동네 조사 계획을 한 줄이라도 다시 쓰게 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. 한 줄이라도 다시 쓰는 일이 이 글 전체의 결과다. 결과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결과를 미루지 않는 일이 이 글 전체의 태도다. 태도다는 말은 좋은 말이다.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일이 되도록 적는 글이다.